



2019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2019. 11. 28.

**금오공과대학교
[재정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2019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금오공과대학교

일 시 임시회 본회의 <2019년11월28일(목) 개회11시00분, 산회12시30분>

장 소 금오공과대학교 중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 2019~2023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의결상황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
2019~2023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일부수정 가결

□ 2019년도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 주요내용

일 자	회 의 내 용	
제3회 임시회 '19.11.28. (목)	1.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2. 심의결과	
	심의·의결 안건	심의·의결 결과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전원찬성)
	2019~2023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일부수정 가결(전원찬성)

□ 재정위원회 임시회 상세회의내용

○ 2019년 제3회 재정위원회 임시회 회의내용 및 결과

일시	2019. 11. 28.(목) 11:00~12:30	장소	본관 7층 중회의실
참석자 현황		재적위원 15명 중 13명 참석	

<성원 보고>

- 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간사(총무과장): 재적위원 15분 중 1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위원회 임시회 성립함

<안건 상정 및 심의>

- 위원장: 첫 번째 안건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제1호 안건)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정시영 위원: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관련근거 및 세입·세출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함
- 재무팀장: 회의 자료에 따라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과 부서별 자체조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함
- 위원장: 성립 전 예산은 이미 예산을 다 썼다는 것 아닌지?
- 재무팀장: 일부 집행된 부분도 있음
- 이영훈 위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사업계획서는 언제 제출했는지?
- 조정기금팀장: 재정사업비 관련 사업계획서는 4월 제출하였고 본격적인 예산 배정은 7월 말임
- 이영훈 위원: 4월 며칠에 제출했는지?
- 조정기금팀장: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아 확인을 해보겠음
- 이영훈 위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언제 예산편성 되었고 언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지?
- 재무팀장: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담당 팀장을 배석시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음
- 이영훈 위원: ICT인재양성사업은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 산학사업팀장: (답변 준비 배석함)
- 이영훈 위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지 않은지?

과장님 참석 요청함

- 위원장: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음
- 산학사업팀장: 8월 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9월 1일부터 협약함
- 이영훈 위원: 8월 말 며칠인지?
- 산학사업팀장: 8월 26일쯤으로 기억함
- 이영훈 위원: 지금 사업 운영하고 있는지?
- 산학사업팀장: 하고 있음
- 박준영 위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다른 대응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 재무팀장: 맞음
- 박준영 위원: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1억을 증액한다는 것인가, 나머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조정기금팀장: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13.6억 원 사업비에 대학 자체 부담금이 1억임. 국고(한국연구재단)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국고를 먼저 쓰고 있고 대학회계 부담금은 연도 내에 다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준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우리가 집행해야 할 돈이 안 들어와서 먼저 집행하고 돈이 들어온다는 뜻인가? 그러면 1억 원 증액을 한 것인지?
- 조정기금팀장: 증액이 아니라 대학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돈임
- 정인희 위원: 사업비에 국고(한국연구재단)가 있고 지자체 대응자금이 있고 학교 대응자금이 있는데 학교 대응자금 1억이 추경 편성(안) 되어있음. 지자체 대응자금의 경우 아직 지자체 추경이 끝나지 않아 대응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고는 들어와 있으며 모든 돈은 대학회계에 편입이 됨. 우선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 국고든 우리 대응자금이든 먼저 있는 돈을 가지고 쓰면 사업비 총액을 벗어나진 않음. 먼저 집행을 하고 뒤에 지자체 돈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됨
- 한규필 위원: 2페이지 성립 전 예산 세부내역이 정리된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배포 자료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재무팀장: 교수회 자문 시 재정지원사업 60억에 대한 세부 자료는 오늘 배부된 자료로 같음하는 것으로 이해함
- 한규필 위원: 둘 다 필요한데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
- 재무팀장: 준비하겠습니다. 기획협력과에서 재정지원사업 날짜에 대해서 설명 준비 되었음
- 조정기금팀장: 국립대학육성사업은 4월 29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3월 6일 제출함
- 이영훈 위원: 그렇다면 조금 빨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정인희 위원: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있음
- 이영훈 위원: 사업계획이 4월 29일에 되었고 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기간이 2월 28일까지 임. 사업기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 정인희 위원: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전 구성원들과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교수회에도 심의를 받으려고 자문 요청 했는데 교수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가 와서 제출을 했음. 이 건으로 성립 전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한 건으로 재정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함. 그래서 다른 안건들이 있을 때 같이 심의 받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함
- 이영훈 위원: 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미 다 끝난 예산을 심의한다면 심의를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 할 수 없음
- 정시영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재정지원사업비의 경우 집행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국책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매번 예산이 생길 때마다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추후 재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이영훈 위원: 운영방식은 그렇지만 지금이 11월이므로 너무 시기가 늦지 않은지?
- 정인희 위원: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3, 4월 시점이지만 전담기관인 연구재단에서 컨설팅을 계속 하면서 최종 예산 확정된 것은 9월 말임
- 이영훈 위원: 재정지원사업비의 경우 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내에 재정위원회 회부하여 통과 후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재정지원사업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 조정기금팀장: 국립대학육성사업 총 사업비는 30.09억 원임. 지역사회기여 항목은 지역사회개방형 교육, 지역사회문화공헌, 지역사회 공유가 대표적임.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사회배려 대상자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 대학 방문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네트워크 사업으로는 지역교육기관 상호협력, 평생교육원 지역민 프로그램, 지역 공공성 프로젝트 운영 등임. 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에서는 캡스톤 프로젝트 운영, 지역 특화 연구 프로젝트, 취업 스타트 지원, 기타 교수학습법 지원 등이 있음
- 이영훈 위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 조정기금팀장: 주로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주목적임
- 이영훈 위원: 교육은 안 들어가는지?
- 조정기금팀장: 교육프로그램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교육 연구 중점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중심으로 담겨 있음

- 위원장: 회의 자료상 80.52억 원과 81.46억 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 조정기금팀장: 추정(안)자료에는 전체 추정 후 증감이 80.52억 원이라는 뜻이고, LINC플러스사업과 재정지원사업 연계 자료에는 재정지원사업비의 총합이 추정 후 총 예산이 81.46억 원이고 증감액이 66.53억 원이라는 의미로 이 자료는 재정지원사업만 담겨져 있음
- 정시영 위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POINT사업처럼 대학간 연계 사업이 주를 이루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이전에 ACE사업,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임
- 이영훈 위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의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라는 의미로 보임. 그렇다면 이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 조정기금팀장: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영훈 위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음. 우리 학교에서 매년 신입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학생들의 자존감이 높고, 졸업 후 취업 희망지를 물어보면 대기업과 공직사회가 거의 80% 이상임. 우리 대학 입학생 고등학교 수준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데 그 갭을 메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학생들에게 기초과학, 전공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없음. 본부에서 고민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역량과 교수님들의 연구환경을 키워줘야 하므로 내년에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으면 함
- 위원장: 각 부서 수요조사도 다 했을 것인데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받았는지?
- 조정기금팀장: 받았음
- 위원장: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지?
- 조정기금팀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사업계획서 반영 후 최종 제출함
- 위원장: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인지?
- 정인희 의원: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에 대해 연구재단에서 사업 방향에 맞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있음. 보완 의견이 연구재단 측 컨설팅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음. 취업지원본부 및 입학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간 사업 중복성을 체크하며 중복을 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 있어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도 알아주었으면 함
- 위원장: 재정지원사업비의 경우 재정위원회에서 향후에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잘 하였는지 걱정하고 있는 것임. 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같고 컨설팅까지 받았으니까 적절하게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으므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기획협력처에서 하고 있지만 재정위원회에서 미리, 조기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 한규필 위원: 추정편성 5억 증액 내역은 자료에 없는 것 같음
 - 재무팀장: 증액 내역은 사업계획서 상 표시되어 있음
 - 한규필 위원: 성립 전 예산은 재정위원회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뿐이라 늦음. 추정건에 대한 교수회 자문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음. 초기에 재무팀에서 올라온 자료는 회의 자료처럼 내역만 나열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고 자문하기가 곤란했는데 기획협력처 자료가 추가 되면서 소멸된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기존 사업과 중복성을 피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음. 향후에도 숫자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없고 수익 사업비 예산이 있으면 어떤 전략에 따라 배분을 하는지, 성과분석 및 공유를 하고 차기에 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성립 전 예산 사업비는 결산 시점에 볼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이전에 공청회를 진행하지만 저희에게 공유될 기회가 없음. 예산 편성권과 조정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료도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많이 보완됨. 국책사업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치는 즈음에 재정위원회가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가 있었으면 함. 과거에는 국책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 계획성 검토 진행사항 점검을 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기능이 약화된 것 같은 느낌도 있음. 과거에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 시 심도 있게 성과분석을 해서 국책사업 신청 시 그 자료만 보면 쉽게 파악이 되고 사업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되었는데 요즘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약식임. 오늘 심의자료에서 성립 전 예산을 분석해보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가 도움이 되었음. 향후에는 재정지원사업비가 미리 보고되었으면 하고, 부서 요구 예산에 대한 자세히 성과분석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함
 - 위원장: 재정위원회가 미리 재정지원사업비를 볼 수 있으려면 규정을 개정 하여야 할 것인데 윤봉길 과장님 고민 부탁드립니다

- 간사(총무과장): 동의해주신다면 매번 재정위원회 개최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고 국책사업관리위원회 끝난 자료라도 공유하여 사전에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함
- 위원장: 다음 회의부터 과장님 배석 바람
- 이영훈 위원: ICT인재양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과제를 가지고 성과를 내기가 난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제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 산학사업팀장: LINC플러스 사업이 종료되고, 휴스타 사업 초기에는 경북이 제외되어 경상북도에서 우리 학교를 위해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주었고 산업체맞춤형인재양성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 받았음. 경상북도 측에서 LINC플러스 사업단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잘했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도 및 시 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서가 산학협력 부서라 산학협력 연관성을 가져야 해서 지역기업지원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설계함. 4개년 사업이었는데 확인 결과 예산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사업 종료 예정임. 학과에 수요조사를 받아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경상북도에서 제안 받은 것이 7월이고, 8월초에 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아 시간이 촉박하여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고, 열심히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내년 2월 사업 종료로 사업이 일몰된 상황임
- 이영훈 위원: LINC플러스 사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결과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 산학사업팀장: 분석이라기보다는 LINC플러스 사업에서 우수사례 프로그램을 가져옴
- 이영훈 위원: 도에서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잘 썼다면 예산을 더 주지 않았겠는가?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논리정연하게 될 것임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리뉴얼 예산의 경우 현재 학술정보시스템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리뉴얼하려는 것인지?
- 이병희 위원: 시스템이 구축된지 10년이 넘었음
- 박준영 위원: 이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 이병희 위원: 특이소요 사업에 편성하였다가 미반영됨
- 박준영 위원: 총장님과의 열린 오찬 프로그램이 1차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수요파악이 안 된다는 것인지?
- 정인희 위원: 기획협력처 추진하다가 교원은 교무처, 직원은 사무국으로 조정이 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것임

-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예산을 심의하는 타이밍 문제와 차년도 사업을 위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차년도 예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 하라는 뜻임
- 박준영 위원: 이번에 학과 중장기발전계획을 해보니 학과간 의견 수렴 및 사업 요구에 도움 되는 점이 많아 내년에도 진행해주었으면 함
- 위원장: 학과 중장기발전계획은 기획협력처 소관인지?
- 정인희 위원: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진행함
- 위원장: 위원 전원찬성에 의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제2호 안건) 「2019~2023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 위원장: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람
- 정시영 위원: 중기재정운용계획(안) 작성 근거와 재정운용계획의 개념 및 우리 대학 수입여건과 지출여건,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방안과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함
- 재무팀장: 중기재정운용계획(안) 회의자료에 따라 안건 세부 설명
- 이영훈 위원: 매년 지출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예산과의 차액을 어떻게 충당할지 방안이 나와야 함. 현 상태로만 편성을 했지 교육부에서 나오는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지 방안이 없음. 민간이나 지자체,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공격적 이지 않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생각함. “성과와 반성” 부분에서 집행율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이지 못하고 안이 하게 분석이 된 것이라 보임.
- 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함. 수입이 0.1%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감소하는 것임. 외부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공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
- 정시영 위원: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성 때문에 등록금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고 등록금 대신에 재정지원 늘려주는 식으로 국가에서 대학측에 지원을 할 것임. 현재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고 LINC플러스 사업 재도전 등을 통해 국가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음. 다행히 내년에 LINC플러스 사업 탈락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재원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중기재정운용계획 안에 지원금을 연평균 2.6% 상향 편성하였고 수입대체, 기타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번 계획이 틀렸다면 연동계획이므로 내년에 수정하겠음

- 한규필 위원: 수입대체 기여도가 높은 사업은 무엇인지?
- 재무팀장: 수입대체는 수입을 사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출로 사용하므로 공공요금 부담 정도로만 대학회계에 기여하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수입 대체경비는 생활관, 평생교육원 등이 있음.
- 한규필 위원: 공무원 확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안이 있으신지?
- 정시영 위원: 조만간 교육부 방문을 통해 공무원 정원 증원 요구할 예정이며, 비슷한 규모의 대학에 비해 우리 대학 공무원 숫자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그 비용을 대학회계 비용을 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실정이므로 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 위원장: 수정안을 하는 것으로 하자.
- 이영훈 위원: 저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장: 언제까지 계획이 완료되어야 하지?
- 재무팀장: 내일까지임
- 위원장: 연도별 자체수입 규모를 배포된 수정안으로 수정하고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 부분에 공격적인 노력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면 어떤지?
- 이영훈 위원: 지원금이 100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학생 역량 개발 등 가능해짐
- 정시영 위원: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장: 제2호 안건 2019~2023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내용을 첨삭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이영훈 위원: 지난 결산시 성과분석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완성이 있었으면 함. 대학지원사업 보고서 제출 전 재정위원회 심의가 어렵다면 제출 후 얼마 기간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가 준비되었으면 함. 향후 재정위원회 회의시 과장님들께서 와서 발표하고 부속기관은 센터장 또는 팀장이 와서 발표하시기를 제안함
- 정시영 위원: 사전에 준비하겠음

<간서인 호명>

- 위원장: 한규필 위원, 유기영 위원, 이용현 위원 등 3명 간서인 호명

<산회선포>

□ 위원 참석부

재정위원회 임시회(2019년도 제3회) 위원 참석부

2019. 11. 28.(목)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신 소 재 공 학 부	위 원 장	이 상 우	이상우	
2	교 수 회	교수회 부회장	한 규 필	한규필	
3	교 무 처	교 무 처 장	권 현 규	권현규	
4	학 생 처	학 생 처 장	김 우 석	김우석	
5	기 획 협 력 처	기 획 협 력 처 장	정 인 회	정인회	
6	사 무 국	사 무 국 장	정 시 영	정시영	
7	학 생 처	학 생 과 장	유 태 완	유태완	
8	전 자 공 학 부	교 수	이 영 훈	이영훈	
9	기 계 설 계 공 학 과	교 수	박 준 영	박준영	
10	도 서 관	사 서 주 사	이 병 희	이병희	
11	대 학 원	행 정 주 사	유 기 영	유기영	
12	전 자 공 학 부	총 학 생 회 장	이 용 현	이용현	
13	응 용 화 학 학 과	총 부 학 생 회 장	김 선 재	김선재	
14	총 동 창 회	사 무 국 장	용 대 순	용대순	
15	동 아 회 계 법 인	회 계 사	배 일	배일	
간사	사 무 국	총 무 과 장	윤 봉 길	윤봉길	